저는 어려서부터 소문난 책벌레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중학교 때 읽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 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래 없는 수난을 당하던 20세기 초, 조선과 만주 땅을 오가며 민족의 부흥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신 삶의 기록은 제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 감동은 어린 제가 “우리 젊은 남자와 여자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구절 속 ‘큰 인물’이 꼭 되리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제가 세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인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 공부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과목 중 학점을 잘 주는 것 보다는 실력을 높이는 것을 선택해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전공영문글쓰기>, <영문법>, <영어통사론>, <영어의미론>, <번역연습>을 수강하여 정규적으로 영어를 쓰고 읽는 법을 익혔고, 고난이도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요구하는 <영미시연구>, <응용언어학특수과제>, <특수장르문학>도 피하지 않고 수강하여 영어로 입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취를 위하여 과목들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전공 과목들 중 수강평가 사이트에서 학점 받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한번도 탈선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총 23개의 전공 과목 중 15개 과목에서 A+를 받고 6개 과목에서 A를 받아 다섯 번에 걸쳐 걸쳐 성적 최우수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두 번째 목표는 어린 시절 다짐처럼 ‘큰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황당하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범 일지>>를 읽으며 받은 감동을 저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 내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나라를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철학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무지를 타파하여 줄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논어, 처음 만나는 한문고전>, 1학년 2학기 때 <동아시아20세기 국제관계사>를 수강하였고 2학년 1학기 때 <동아시아 20세기 국제관계사>,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한국사개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위 네 과목을 비롯해 저는 학부 재학 동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총 12개의 교양 과목 중 8개를 한국의 철학과 역사를 다루는 과목으로 채웠습니다. 다른 학우들과 달리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학점을 받기에는 전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개의치 않고 수강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동아시아 20 세기 국제관계사>를 공부하면서 법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식민지로 몰락하는 20세기 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조약을 체결하는 조선 관리들이 국제법에 무지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례로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관리 신헌이 ‘최혜국 보장’이라는 조항이 발생시키는 법의 작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조항을 승낙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보장’ 조항은 체결 당국이 상대국에게 항시적으로 가장 큰 특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조선은 더하여 미국에게도 동일한 이익을 보장하여야 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국익의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 사례는 2학년 1학기 때 <19세기 조선의 개방과 21세기 국제화 환경>를 수강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조약에서 별 이의 없이 승낙했던 조항인 ‘해안 측량권’은 훗날 일본이 조선으로 용이하게 군선(軍船)을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의 작용을 근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범한 군선은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조선의 식민지화를 부추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조약을 원문으로 읽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문서는 원문으로 읽어야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권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어 교양 수업을 듣고 한자도 외우며 기초적인 일본어와 한문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위 두 과목을 공부하며 법에 대한 몰이해가 국가의 운명을 쇠퇴시킬 수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2학년 2학기 때 <영문학과 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에드워드 쿡, 프로이트, 그리고 푸코의 저서를 영어로 읽으며 법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저는 법이 국가에게 가장 큰 공리를 보장하는 구조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리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시기 조선의 국익이 현격히 파괴된 이유는 이러한 도움을 줄 법조인이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에 법조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면 ‘큰 인물’이 되기 위해 법조인이 되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에 정통한 법조인이 한국에 많은데 제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 어떠한 사명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이카루스’에서 <<안티고네>>를 읽으며 저는 법조인이 될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카루스’는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참여하여 활동한 학과 내 영어 독서 토론 모임입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 희곡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간통했다는 것이 밝혀져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오이디푸스의 곁에 남아 그를 변호한 사람이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는 “내 아버지는 무지 속에서 죄를 저질렀으므로 아무도 아버지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라고 군중에게 오이디푸스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저는 안티고네의 변론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안티고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저는 훌륭한 법조인이란 법에 정통한 법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되돌아보며 법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티고네와 마주하며 법조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질은 의뢰인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을 사랑하지 않는 법조인은 아무리 법에 정통하더라도 성난 군중 앞에서 의뢰인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티고네가 그랬듯 마지막 순간에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 한다면 법조인이 실현할 수 있는 공리를 사랑으로써 보장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지만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밖으로 돌아다니며 활동하기 보다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도서관 붙박이로 알려진 탓에 친구들은 저를 찾고 싶으면 항상 도서관 3층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카루스’에 참여한 것을 빼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변변히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외부 활동을 한 것이 전무하였습니다. 봉사활동도 방학 동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준 것과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쓰는 법을 알려드린 것, 그리고 도서관과 연계된 학교에서 맹아 아동들과 체험학습을 나간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졸업하기까지 1년의 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제가 꿈꾸는 법조인에 걸맞은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3학년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주최한 미래 지도자 양성 캠프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미래 지도자 양성 캠프는 참가자들이 6인 1조로 팀을 짜 협동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는 저에게 큰 난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소에 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며 기껏해야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던 저는 낯선 사람들과 끊임 없이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사랑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사람을 대하는 저의 능력이 한없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에게 선배 한 분이 사람을 대하는 능력은 경험 밖에서는 쌓을 수 없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언을 받아들여 4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임대해 주는 스튜디오를 빌려 ‘하울(HOWL)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울 스튜디오’는 누구나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자신의 학과나 학번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앉은 학생이 하는 말을 덜덜 떨며 듣던 저는 차츰 차분해져 4개월 후에는 상대가 누구든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슨 문제 상황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객관성이라는 이름의 잣대를 들이댔다가는 일을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결말로 마무리하기가 쉬웠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교훈을 해석해 보면 무슨 판단을 내리든 의뢰인의 사적 정의와 크게 어긋나는 결말을 야기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려가 있는 법조인만이 의뢰인을 사랑하는 법조인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보람된 일이었지만 학업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동기들은 학점을 칼 같이 챙기기 바쁜 졸업 년도에 고생을 사서 한다며 저를 보고 고개를 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을 쏟아 운영한 ‘하울 스튜디오’는 책 속 사람들과만 교류하던 제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와 어떠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